

21세기 업무공간에 적용된 탈영역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n-territorial Characteristics of Working Space on 21 Century

신흥경* / Shin, Hong-Kyung
이병선** / Lee, Byung-Sun

Abstract

Changing of paradigm at 21Century is changing a part of routine lives and it affects speculation system of recognizing the world. In this society, human is demanded changing of a part and new learning continuously. Like this, a role of individual and a part of various lives by changing of social environment have a close connection each other. In this society, they would need new circumstance of space by method of work. However, what show not necessity improving of work space but changing is the realities of our society.

This thesis examine non-territorialization characteristics by focusing on the openness, composition, and flexibility. The working space on 21c head for a non-territorialization and be summarize. decenterial arrangement, increasing of public space and unification of personal work-s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n-territorialization by analysis of 21c working space.

키워드 : 탈영역, 업무공간, 유목사회, 탈 중심, 다원화, 탈 위계화

Keywords : Non-territorialization, Working space, Nomadism, Decentering, Pluralism, Non-hierarch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간은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 변화를 요구받는다.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역할과 다양한 삶의 영역들은 상호 맥락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 영역의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있다. 경계의 유연화는 상호 연관성의 증대를 야기하는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역할 변화를 요구받는 다원화된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들은 업무 방식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무 환경을 필요로 한다.

업무환경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명확히 예측하는 핵심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내재된 업무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업무 공간에서는 '조직'과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귀속체계에서 '일'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독립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업무공간의 특성과 그에 따른 디자인은 당시의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스타일에 국한된 것

을 넘어서서 변화하는 사회와 그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업무 기기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무 공간 측면에서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전 시대의 사무기기 중심의 업무 공간에서 오늘날에는 다양한 상황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업무공간의 특성을 적합하게 체계화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회의 패러다임과 함께 새로운 업무방식을 수용하며 탄력적으로 변해가는 업무공간의 특성을 알아보고,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의 유기적 연결과 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업무 환경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상기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되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방법을 정리 하였다. 2장에서는 21세기 패러다임과 업무공간의 개념 및 변화 양상을 연구하여 업무환경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도출하였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보다 통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업무공간 변화의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 정희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 정희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업무공간의 변화 양상에 관한 고찰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업무 방식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3장에서는 21세기 업무환경의 새로운 접근 방향에 따라 도출된 업무공간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고 소결을 내렸다. 사례 분석 대상은 21세기 사회현상과 탄력적으로 소통하는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업무공간으로 선정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사례 분석 내용을 체계화 하여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업무공간이 나아가야 할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2.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업무 공간에 관한 고찰

2.1.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

공간이란 사회적 관계의 형식이며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제약한다. 르페브르(H. Lefebvre)는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공간이란 텅 빈 허공이나 좌표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의 수단이며, 그런 만큼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생산된다는 것이다.¹⁾ 이렇게 공간은 패러다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한다.

(1) 사회적 측면

1) 유목 사회(Nomadism)

일반적으로 유목(nomadism)의 사전적 의미는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물과 목초를 따라 가축을 몰고 다니며 하는 목축’을 말하며 유목민(nomad)은 ‘유목을 하면서 이동생활을 하는 민족’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 있어 유목의 의미는 단순히 가축을 기르며 거처를 옮기는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정주적 질서의 붕괴에 의한 유목적 상황으로써 둘러본다면 이원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질성들이 변화와 흐름으로 나아가며 그러한 요소들이 어디에서나 접속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질서체계로서

<표 1> 들뢰즈의 유목적 특성의 현대적 해석²⁾

	들뢰즈의 유목적 사고 개념	유목적 특성	
선의 사유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이 선의 경로에 종속 • 사물의 상태는 관계 안에서만 특정한 의미를 획득함 • 점에서의 미분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주선의 운동-경계의 이탈-점의 위치가 모호-유동성 • 모호한 공간의 경계 • 연속적인 표면 • 확장된 공간 	유동성
사건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생성은 일시적, 우연적 • 운동과 변화를 사유 • 변화하는 순간에 가치를 부여 • 사건의 계열에 불규칙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의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간적인 사건-움직임의 우연성-일시성 • 이벤트적 프로그램 • 우연적 형태, 가벼움을 강조 • 사용자에 의한 자율성 	일시성
리즘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즘-뿌리없는 식물의 구조 • 리즘구조의 접속 원리-이질성, 비중심화, 비위계적, 비표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즘구조의 복수성-접속, 연결-새로운 질서체계-비위계성 • 복잡한 공간의 구성체계 • 이질적인 형태의 결합 	비위계성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³⁾ 현대 사회의 유목에 관한 많은 논의들 가운데 들뢰즈의 유목적 사고 개념에서 도출된 특성으로 바라본 21세기 사회 변화의 방향은 크게 다원화, 탈위계화, 탈 중심화로 나아가고 있다.

● 유목 사회(Nomadism)의 방향 1 - 다원화

문화의 다원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21세기 사회는 이전의 양분적 세계관에서 다원적 세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역할과 의미는 다원화된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이질성들은 다중적이고 다측면적인 경로를 통해서 연결되고 소통한다. 다중의 차이를 인정하여 소통과 연대를 중시하는 현대적 의미의 다양성이란 인식론적 논법과 다차원적 논리 공간에 의해 개체성과 보편성을 끊임없이 양화·고도화 시켜 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논리적 속성이다. 그럴 때 비로소 개인은 점점 더 자유롭고 점점 더 연대하는, 다양한 개인들이 더불어서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⁴⁾

● 유목 사회(Nomadism)의 방향 2 - 탈 위계화

조직적 공간의 퇴출은 탈 권위적인 사회의 패러다임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조직’과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업무공간에서 ‘사람’과 ‘일’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공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의 변화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근본적인 노동 조직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와 미래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시기이며, 따라서 업무와 자기변화의 요건은 점점 더 강해진다.

● 유목 사회(Nomadism)의 방향 3 - 탈 중심화

21세기 사회는 다원화된 구성원들 간에 서로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는 수평적 조직에 기초해 있으며, 단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양방향성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한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는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의 상호작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다양한 부분과 개별화를 존중하는 탈 중심적 양상이 두드러진다. 다원화된 자원은 각각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분산되어 있지만 목적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므로 사회는 상호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탈 중심화된 사회구조에서는 특정적인 것의 집중화 보다 다양한 것의 분산화를 추구함으로써 상호간의 연결고리를 증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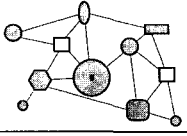
1)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5, pp.43-44.

2)유계환, 업무 형태에 따른 New Society 오피스 공간에 관한 연구, 경원대석논, 2004, p.29.

3)유계환, 업무 형태에 따른 New Society 오피스 공간에 관한 연구, 경원대석논, 2004, p.20.

4)정기효, 한국 사회의 해체와 재구성, 예코 리브르, 2006, p.279.

<표 2> 주변과 중심

A	B
	
고립된 작은 세상의 중심	다양한 세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고리
상호작용의 결여	다양한 공동체 형성의 기반
닫힌 체계	열린 체계
단일화	다원화
자기 중심	주변 중심

2) 지식 정보화 사회

이전 시대의 생산력 위주의 물적 자원은 자본, 공간, 시간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정보를 발생하고 공유하여 재생산시키는 주체는 인간이다.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지식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지식을 갖춘 근로자(knowledge worker)'가 가장 우수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한다.⁵⁾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인간의 사고체계와 업무패턴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중심적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21세기 문화적 현상을 대표하는 요소 중 하나인 '무형적인 것'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인데 이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업무공간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각 개인들의 지적 및 정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 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이렇듯 지식은 경제의 장원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조화 사회(Creative Society)가 도래할 것이다.⁶⁾

(2) 기술적 측면

1) 디지털 기술 사회

18세기 산업혁명에서 20세기 과학기술혁명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혁명', '정보통신혁명'은 산업혁명이 인류사회에 미친 영향력보다도 더욱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표 3> 인류사의 3대 혁명⁷⁾

구분	농업혁명 (BC 7000년경)	산업혁명 (1760년대)	디지털 혁명 (1990년대)
변화동인	원시도구	기계 엔진	디지털 기술 네트워크 기술
변화속도	정체	점진적	광속
변화주도	물리적(군대)	경제력(기업)	지식과 정보 (지식근로자, 신지식인)
통제구조	혈연, 지연의 가부장제	관료적 중앙집권체제	수평적 네트워크형

디지털 혁명은 21세기 사회의 다원화 된 인적·물적 자원들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혁신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 21세기 사회가 갖는 특성은 범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수평(평등)주의, 참여주의, 다가치

주의, 다차원적 소비주의(대량주문), 개인주의, 감각(감성)주의, 친환경 주의의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⁸⁾ 이러한 특성들은 다원화된 사회의 다가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의 지식과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전 시대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본다.⁹⁾

2) 유비쿼터스 - 시공간 응축 21세기는 유비쿼터스적 특성을 현저하게 표출하고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사회적 기술적 동기를 충분히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말에 등장한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정보통신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즉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혁명으로서 인간의 사고체계와 행위들을 새롭게 구조화하기 시작하였다.¹⁰⁾ 이렇게 시간적·공간적인 탄력성으로 인해 거리와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정보의 유통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업무공간의 결정적인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4>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

구분	패러다임		사회변화양상	
사회적 측면	유목 사회	탈위계화 다원화 탈중심화	다원화된 주체들이 수평화 되고 중심이 해체된 체계의 공동체 형성	다양한 사회 영역의 경계가 유연해지고 상호간의 연관성이 증대
	지식 기반 사회			
기술적 측면	디지털 기술 사회		혁신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을 초월한 즉각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소통의 가능	
	유비쿼터스			

2.2. 업무공간의 개념 및 변화 양상

(1) 업무공간의 개념

업무환경이란 사무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무직 종사자가 일하기 위한 여건의 총칭이다. 즉 업무공간은 단순히 공간의 물리적, 화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업무공간과 관련하여 기업이나 조직의 목적달성을 지원하고 근무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 또는 제반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¹¹⁾

과거 업무공간의 개념은 '업무를 보는 장소'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나 그들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

5) 피터 드러커, 미래경형, 청림출판, 2001, p.469

6) 이승재, 업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오피스 계획안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논, 2003, p.17.

7) 김완표, 디지털 혁명의 충격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1, 01

8) 이기정, 디지털 문화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능성 예측 연구, 연대 석논, 2000,

9) 홍성욱, 하이브리드 세상 읽기, 안그래픽스, 2003, p.90.

10) 김완석, 디지털 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 2000, p.27

11) 강호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무환경 계획방법, 연세대 석론, 2000, p.5

석 없이 주어진 공간 안에 직급별로 테이블을 배치해 놓은 것이었다. 1970년대 이래로 본격화된 노동의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공간의 디자인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그에 따른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이고 고정관념화 된 스타일의 공간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업무공간의 개념은 '생활공간장소'로서 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생활을 위한 공간의 요구가 생겨나고 있다.

(2) 업무공간의 변화양상¹²⁾

오늘날 업무 공간 디자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업무 공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21세기 초반에서 2000년대의 업무공간에 이르기까지 오피스 디자인의 선두주자였던 유럽, 미국, 일본 등지의 일반적인 업무공간변화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20세기 초반의 사무실 업무는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위주였다. 사무작업의 증가와 근본적 변화는 오피스 빌딩의 디자인에 있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전의 사무실이 소규모의 주거용 건물이었던 데 비해, 시끄러운 사무용 기기들로 이루어진 개성이 없는 사무실로 변해간다. 19세기까지의 업무공간은 개인 혹은 2~3인이 사용하는 폐쇄형 공간이 보편적이었으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Open Plan Office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오피스의 쾌적성, 공간·설비의 공유, Flexibility 측면에서 모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확산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 Flexibility와 Information Technology의 중요성이 강력히 주장되기 시작했다.¹³⁾ 정보교환은 더 이상 상사에서 부하직원으로의 수직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며, 단지 기능적인 라인으로만 존재한다는 것과, 부서나 계급조직의 벽은 사라져야 한다는 신 사무환경 이론이 등장했다.

1970년대의 특징은, 오피스 설계 경향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적정하지 않은 습도, 부적당한 소음레벨, 자연광의 부족, 바깥과의 시각적 접촉의 결핍, 자연환경의 부족 등을 이유로 Office landscape 대신 정반대의 개념인 Cellular Office¹⁴⁾를 선택하였다. 이 시기의 사무환경의 또 다른 경향인 Combi-Office는 셀 타입의 오피스와 개방형 오피스를 조합한 해결방법이었다. 투명한 파티션을 가진 작은 방들이 건물의 외곽을 따라 창가 쪽으로 배치되어, 동료들의 지나친 방해 없이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업무공간은 OA(Office Automation)화의 진행으로 비인간적 장소로 변모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OA화만으로는 바람직한 사무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안전성, 능률성, 쾌적성에 대한 인식이 차츰 새롭게 대두되었다.

1980년대의 오피스가 정보기술의 수용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1990년대는 정보기술이 오피스의 'Virtuality'를 가져오게 된 시기였다. Virtual office란 이동 통신 및 정보 전달기술을

이용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장소, 환경 또는 그러한 업무방식(virtual officing)을 말하며, Mobile Office라고도 한다. 업무는 양적으로 증가되었지만 그에 따라 OA화도 급진전되면서 기능형 사무직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기계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 즉 조사, 연구, 개발, 홍보, 선전 등 감성 및 지성의 의존형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었다.

업무공간의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업무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 분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시기별 오피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분석¹⁵⁾

구분	후기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전기부흥기		고도성장기		저 성장 안정기	
가치관	기본적 욕구		진취적 성장	차별화 추구	자아실현욕구	개인적 성장
	공포, 불안, 혼란 등에서 탈피를 추구	안정적 생활에 대한 욕구 상승	치열한 경쟁심으로 우월주의의 경향	중산층 문화의 형성시기로 개인주의 성향	자신의 본질을 추구하며, 현실주의적 사고방식	경제적 풍요로 시기, 자아실현, 개성화 욕구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인간	-개인을 관리, 감독 대상으로 인식 -직위에 따른 계급 중심적 관계 (수직관계)		-개인주의적 성향의 등장		-창조성 중시 -오피스 근로자의 증가 -프라이버시의 중시	-문화, 정신적 풍요로 움직임 지향 -개인자유 존중 -에코르지의 관심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레저 문화
업무	-업무중심의 사회 -효율성, 능률성의 추구 -상부에서 하부로의 명령체계		-컴퓨터의 도입 -온라인화, 컴퓨터화		-정보분야의 중요성 대두 -오토메이션의 확대 보급 -자기개발의 노력이 요구됨	-정보 교류 증대(글로벌 리움) -능력별, 평등적, 업무 방식 -개인의 존엄성 확대 -조직의 소규모화
공간	-일렬식 레이아웃 -회색의 철제 기구		-쾌적함을 추구하기 시작 -오피스 공간의 부족 -시스템 기구의 활성화로 획일화		-OA화의 진전과 함께 인간적인 대응의 필요 -기구 단순기능에서 다기능화 -쾌적한 기능적인 오피스의 지향 -인텔리전트 빌딩의 출현	-여유와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오피스 추구 -OA기기의 보편화, 소형화
조직 체계	계층(피라미드)조직		사업부 조직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업무공간은 시대의변화에 따른 가치관, 인간, 업무, 공간, 조직체계의 측면에 있어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즉, 패러다임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업무공간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활동인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아실현은 일의 성취도와 연결된다. 심

12)강호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무환경 계획방법, 연세대 석론, 2000, pp.5-13 요약
 13)McGregor, D., The Human Side of the Enterprise, McGraw-Hill, New York, 1960
 14)Cell Office 방식은 모든 근무자들이 개별 오피스를 갖고,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하며, 자연광과 바깥경치를 맘껏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5)이승주, 정보화사회의 New Office 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석론, 1999

리학자 머슬로우¹⁶⁾가 말하는 가장 상위의 욕구 단계는 자아실현의 단계인데, 21세기 업무공간에서는 일의 성취도와 팀워크(team work)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아 실현을 경험할 수 있다. <표 2> 시기별 오피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분석¹⁷⁾을 보면 정보화 사회의 가치관에서 '자아실현의 욕구'와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1세기에는 불특정 다수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그에 따른 융합이 매우 중요한 가치관으로 부각될 것이다. 개인보다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연계성이 중요해질 것이며 다원화된 개인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상호 작용하는 유기체이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 할 수 있다.

(3) 업무 방식의 변화

업무 방식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표출하는 총체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2)에서 고찰한 업무공간의 변화 양상을 통해 패러다임과 업무 방식과의 연관성은 시대에 따라 사회·기술적 측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21세기 업무환경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업무공간의 변화 가운데서 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조직'과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귀속체에서 '일'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 독립체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오늘날의 업무공간에서 '일'과 '사람'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인간 중심적인 환경 속에서는 창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 시대에는 단일 업무 중심의 수직적 업무 처리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오늘날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하는 수평적 업무 처리 방식으로 그 패턴이 전환되고 있다. 즉, 고정적인 중심이 있지 않고 유동적인 주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업무 공간을 구성할 때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공간 환경 구성에 중점을 두어 사용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6> 업무방식의 변화

	2000년도 이전	2000년도 이후
중요한 가치	장소, 조직	사람, 일
조직체계 성격	수직적 귀속 체계	수평적 독립체계
인적자원 구조	선형	그물망형
조직 편성	고정적	유동적
업무 유형	단일 업무 개별적·분리된 작업 일상적인 업무	복합적 업무 그룹, 팀 프로젝트 창의적 지식 개발 업무
공간 점유율	직급별 배치 30%의 공간 활용	프로젝트, 팀별 배치 100%의 공간 활용

2.3. 21세기 업무환경의 새로운 접근 방향

업무환경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명확히 예측하는 핵심은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따른 내재된 업무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다.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활동인 '업무' 방식의 변화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표 7> 21세기 패러다임에 따른 업무방식의 변화와 업무공간의 방향

구분	21세기 패러다임	업무방식의 변화	업무공간 변화의 방향
사회적 측면	다원화 탈 위계화 탈 중심화	그물망형 연결 체계 유동적 팀 편성 그룹, 팀 프로젝트	개방성 혼성성
기술적 측면	디지털 기술사회 유비쿼터스	창의적 지식 개발 업무 복합적 업무	가변성

21세기 새로운 업무공간은 변화한 업무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로써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서 고찰한 21세기 사회적·기술적 변화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업무공간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업무공간의 개방성

절대적인 위계 서열에서 탈 위계, 탈 경계의 양상으로 나아가는 21세기 업무공간은 단일적인 기능에 국한된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업무환경 보다는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추구한다. 기존의 업무공간이 폐쇄적 개인소유의 작업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개방형 공유 업무 공간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은 상호 유기적인 수평구조의 업무체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2) 업무공간의 혼성성

탈 중심화 된 수평적 조직 체계 속에 있는 다원화된 개인들의 주체성을 회복하면서 업무공간이 지향하는 일의 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은 '개인'과 '개인들 간의 연계성' 모두를 존중하는 것이다. 업무공간은 근로라는 일, 즉 단순 노동을 하는 곳이라는 과거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창의적 지적 활동을 위해 인간이 가져야 되는 삶의 본질적 요소들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소한 욕구와 욕망이 문화화 한 행태 속에 쉽게 스며들게 하는 기반과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업무공간의 가변성

유기적 흐름을 통해 고정적이고 정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업무방식의 다양한 유형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통합과 분화, 개별성과 집합성이 한 업무 공간 내에서 '흐름과 집중'의 개념 속에서 자연스럽게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촉진한다. 고정적이고 정적인 것에 의해 구획되었던 공간을 가변화 하여 다양하고 유동적인 흐름 속에 새로운 창의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3. 21세기 새로운 업무공간의 사례 분석

3.1. 21세기 사회의 탈영역화

21세기 사회는 기존의 정형화 된 조직 속에서 단일한 역할을

16)머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은 1943년경에 소개된 이래 가장 널리 보급되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 받아들여진 이론이다. 머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계층의 형태로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가장 낮은 욕구에서부터 가장 높은 욕구로 올라가는 순서에 따라 욕구가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1단계, 생리적 욕구/2단계, 안전욕구/3단계, 사회적(소속) 욕구/4단계, 자존(존경)욕구/5단계, 자아실현욕구)

수행하는 것에서 점점 다원화된 인적 네트워크의 통합적인 역할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탈 위계적, 탈 중심적 특성들이 나타난다. 다원화된 개인들 간의 연계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간의 경계가 점차적으로 유연해지고 가변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공간에서 탈영역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3.2. 21세기 새로운 업무공간 사례 분석

앞서 고찰한 21세기 업무환경의 새로운 접근 방향을 사례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실제로 업무공간에서 개방성·혼성성·가변성의 흐름들이 어떠한 공간 디자인 표현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표 8> 업무공간 사례분석

구분	[Cellular Operation Ltd], Swindon, UK, 2000
도면	
이미지	
공간분석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평적 배치에 의한 공간 구성. 업무 공간의 유닛화가 이루어져 있어 공유 좌석제가 가능하여 공간 사용의 활용도를 높임.
	혼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공간 주변에 존재하는 공공 공간의 존재로 소통의 장이 형성.
	가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의 가변적 배치가 가능하여 유동적 상황에 따른 공간 구성이 가능함.
구분	[Vitrol], Weil am Rhein, Germany, 2000
도면	
이미지	
공간분석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을 최소화 하여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지향. 기능에 따른 영역의 구분을 벽이 아닌 단 차이로 형성함으로써 열린 공간 계획을 가능하게 함. 나지막한 파티션에 의한 공간 분리로 효율적인 공간사용 가능.
	혼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공간 내의 독립된 공공 공간의 존재로 소통의 장이 형성.
	가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업무와 팀 프로젝트에 모두 적합한 유연한 공간 구성으로 상호간의 연계성을 증대시킴.

구분	[Tobias Grau], Rellingen, Germany, 2001
도면	
이미지	
공간분석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별 공간에 따른 개방적인 레이아웃 구성 벽과 칸막이의 제거하여 시각적인 개방성화를 추구함. 수평적 배치에 의한 공간 구성
	혼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공간과 공공공간(휴게공간 및 회의공간)이 실로 구획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구성됨 위계적 배치가 아닌 수평적 공간 배치를 이룸
	가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공공공간의 구성으로 다양한 상황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음.
구분	[DZ-BANK], Berlin, Germany, 2001
도면	
이미지	
공간분석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픈된 공공공간의 구성으로 사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함.
	혼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개의 업무의 연장선으로 회의공간에서 상호교류 이루어짐.
	가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목적적 공공공간(화상회의실, 휴게공간 등)의 열린 구성으로 다양한 상황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음.
구분	[Beacon Communications Office], Shinagawa Tokyo, 2002
도면	
이미지	
공간분석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평적 이고 중심이 해체된 배치에 의한 공간 구성. 벽을 없애고 경계를 투명한 유리로 마감함으로써 시각적인 개방감을 추구함.
	혼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공간과 팀 공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룸. 일정한 Unit에 의한 공간구성으로 공간의 최대 활용. 회의실을 비롯한 다목적적 공공공간의 조성으로 상호간의 소통의 기회가 증대됨.
	가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팀 또는 개인에게 맞는 업무공간 구성. 일의 특성에 따른 공간 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상황에 따른 유동적 사용을 가능하게 함.

구분	[Beacon Communications Office], Shinagawa Tokyo, 2002	
도면		
이미지		
공간 분석	개방성	• 벽과 칸막이의 제거를 통해 시각적인 개방성을 이룸.
	혼성성	• 많은 회의실 조성에 따른 팀 작업의 상호보완성 증대 • 업무영역 이외의 공공 공간의 증대로 상호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
	가변성	• 고정된 기능이 부여되지 않은 열린 공간의 존재로 상황에 따른 공간 사용이 가능함
구분	[Bicell Investment], Seoul, Korea, 2003	
도면		
이미지		
공간 분석	개방성	• 창조적 업무에 따른 개방적 공공공간의 조성. • 공간의 공유좌석제로 공간의 효율성 증대.
	혼성성	• 통합화 된 공공영역의 증대로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 많은 회의실 조성에 따른 팀 작업의 상호보완성 증대. • 파티션이 아닌 가구들에 의해 공간 분리로 효율적인 공간사용 가능
	가변성	• 팀 또는 개인에게 맞는 업무공간 구성. • 개인의 업무와 팀 프로젝트에 모두 적합한 유연한 공간 구성으로 상호간의 연계성을 증대시킴.
구분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Seoul, Korea, 2004	
도면		
이미지		
공간 분석	개방성	• 벽과 칸막이를 제거하여 시각적인 개방성을 이룸. • 직급에 따른 업무공간의 차별화 나타나지 않고 모두에게 수평적인 공간 배치를 이룸.
	혼성성	• 독립된 회의 공간과 소규모의 오픈된 원형 회의 부스는 개인 워크스테이션 주변에 존재하며,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어짐. • 직원들의 공용좌석제 가능.
	가변성	• 특별 공간에 따른 개방적인 레이아웃 구성. • 벽과 칸막이의 제거를 통해 시각적인 개방성을 이룸. • 워크 스테이션의 경량화로 상황에 따른 가변적 배치가 가능하여 다양한 유형의 배치를 형성할 수 있음.

3.3. 소결

위의 사례 분석을 통해 21세기 업무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공간과 인간, 업무와 인간이 그 영역을 넘나들며 상호 소통하는 개방적인 환경을 지향함을 알 수 있다. 업무공간의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 업무공간이 지향하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창의적 업무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표 2> 특성에 따른 업무 공간 사례분석

패러다임에 따른 21세기 업무공간의 방향	
사회적 측면 개방성, 혼성성	기술적 측면 가변성
▼	
공간 배치 탈 중심, 다중심, 수평적 공간 배치	공간 사용 다목적적, 유동적
▼	
공간의 변화와 업무의 상관관계	
팀의 재편성에 따른 다양한 업무 가능 매개(공유)공간의 존재로 인한 소통의 증대	경계의 유연화에 따른 다양한 대상들 사이의 결합 증대, 다양한 공동체 형성
▼	
경계와 영역의 유연화에 따른 상호작용의 증대와 통합적인 문화 업무 공간의 창출 공간 구성과 사용의 측면에 있어서 탈 영역성 지향	

공간의 개방성, 혼성성, 가변성은 복합적인 연계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별개의 특성으로는 무의미하며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부분과 전체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 업무공간의 통합과 분화는 궁극적으로 탈영역화를 지향한다. 탈영역화는 재영역화를 수반하며 끊임없는 공간의 다변화를 통해 연계(connectivity)를 더욱더 풍부하게 한다.

4. 21세기 업무공간에 적용된 탈영역성

커뮤니케이션, 협력, 의견 대립과 비판, 환상과 새로운 생각들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기 위해서는 패러다임과 탄력적으로 통합 될 수 있는 변화에 맞는 사회적·정신적·공간적 개방과 관대함이 요구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를 담아내어 창의적이고 문화화 된 높은 수준의 업무공간을 만들어내고 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1세기 업무 공간을 개방성, 혼성성, 가변성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으며 사례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탈영역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4.1. 탈 중심적 주변화에 따른 수평적 공간 구성

탈 중심적 업무공간은 공간의 배치가 수직적이거나 집중되어 있지 않고 수평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분산화 되어 있어서 특정한 조직이 아닌 누구라도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방적인

업무공간을 지향하고 다중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다원화된 사회는 이러한 탈 중심적 공간 구성을 통해 중심을 분산하고 분산된 것의 다양한 조합과 소통을 유발한다. 소통의 증대는 21세기 업무공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탈중심적 주변화에 따른 수평적 공간 구성은 21세기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한다.

4.2. 공공 영역(매개공간)의 확대 및 증대

다양한 성격의 소규모 단위 개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동체는 공식 또는 비공식 접촉을 통한 정보의 공유 및 정보가치의 재창출을 위하여 화상회의실, 컨퍼런스 룸, 미팅 룸, 휴게공간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은 다양한 팀이 동시 다발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독립적인 공간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개인 업무공간의 사이에 존재하기도 하여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를 점점 더 유연하게 만든다. 21세기 업무공간에서는 공공 공간의 확대 및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유연적 공간의 사용으로 가변성을 추구한다.

오늘날에는 급변하는 사회의 속도만큼이나 일시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때마다 이루어지는 팀의 재편성은 다양한 공유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다중과 대중이 이용하는 양질의 공유공간의 확대 및 증가는 다양한 업무적 요구에의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공간과 공간을 상호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매개체로서의 공간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간의 소통을 증대시키고 자유로운 만남, 휴식, 회의를 통해 양질의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

4.3. 개인 업무공간의 통합·유니트화

커뮤니케이션 망이 구축된 공간 안에서의 개인의 공간은 개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모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유니트화 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개인의 워크 스테이션은 전체 속에서 부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협력과정이라는 전체 네트워크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공간 구성 요소의 단위화와 모듈화에 의한 공간의 이동성, 전이성은 업무에 따른 다양한 상황 연출이 가능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모듈화 된 공간 구성 요소는 변화하는 업무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듈화 된 조형요소는 가변성이 가능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업무를 생산해 내는 지식 중심 업무공간에서 필수불가결한 조형 표현 요소가 되고 있다.

5. 결론

업무 공간 디자인은 기능과 정서 사이,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한다. 21세기의 업

무공간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개인들을 위해 디자인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업무공간의 탈영역화는 특정한 개성이 아니라 다양한 개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흐름이 될 것이다. 21세기 사회 패러다임과 업무 방식의 유기적 상호작용 따른 업무공간의 탈영역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 중심적 주변화에 따른 수평적 공간구성은 개방적인 업무공간을 지향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형성을 유도한다.

둘째, 공공공간(매개공간)의 확대 및 증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적절한 분화와 통합을 이루어 공간과 공간, 공간과 인간을 상호 연결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셋째, 개인 업무공간의 통합·유니트화는 워크스테이션의 단위화와 모듈화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형적 요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경계와 영역이 허물어지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업무공간의 탈영역화는 공간과 인간 그리고 업무의 세 요소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점차적으로 진화해 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향후에 본 논문에서 고찰한 '21세기 업무공간에 적용된 탈영역성'을 바탕으로 업무공간의 기획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탈영역성을 보이는 업무공간의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평면상에서 탈 중심적 공간 구성과 가구 배치에 따른 자유로운 동선에 관한 부분.

둘째, 다양한 공공 영역의 삽입에 따른 상호 소통에 관한 부분.

셋째, 개인 업무공간과 공공 영역을 묶어낼 수 있는 통합적 디자인 방안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유계환, 업무 형태에 따른 New Society 오피스 공간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논, 2004
2. 한지연, 21세기 업무공간의 감성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2호, 2007. 04
3. 이승재, 업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오피스 계획안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논, 2003
4. 이기정, 디지털 문화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능성 예측 연구, 연대 석논, 2000
5. 고윤황,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지식 오피스 구축을 위한 실내공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논, 2002
6. 강호성,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무환경계획방법, 연세대 석론, 2000
7. 김영식, 디지털 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 2000
8. 우타 브란데스, 디자인은 예술이 아니다 시지락, 2006
9. 세계의 뉴 오피스, 월간 인테리어, 1998년 5월호
10. 이승주, 정보화사회의 New Office 디자인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론, 1999
11. 홍성욱, 하이브리드 세상 읽기, 안그래픽스, 2003
12. 정기효, 한국 사회의 해체와 재구성, 에코 리브르, 2006
13.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5
14. 피터 드러커, 미래경형, 청림출판, 2001
15. McGregor, D., The Human Side of the Enterprise, McGraw-Hill, New York, 1960

<접수 : 2007. 4. 30>